

‘음주 파문’ 4명 대표팀 자격정지 1년

이운재·우성용 등 K-리그는 출전 가능…홍명보 코치 엄중 경고



지난 7월 2007 아시안컵축구대회 기간 음주 물의를 빚은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왼쪽부터)이 2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별위원회에 차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아시안컵축구대회 기간 음주 물의를 빚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이운재(34·수원)와 우성용(34·울산), 김상식(31·성남), 이동국(28·풀즈브레)에게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대표팀의 홍명보 코치와 코사 코치는 엄중 경고 조치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소속팀의 K-리그 경기 출전에는 지장이 없어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축구협회 이갑진 상별위원회장은 2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아시안컵 대회 기간 숙소를 무단 이탈해 술을 마신 이들 대崩에 대한 상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음주 사건을 주동한 이운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 외에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 정지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함께 음주한 한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에게는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2년 간 출전정지, 사회봉사 40시간에 처했다.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동국은 국내 소속팀에 복귀할 때부터 징계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팀 자격 정지는 바로 적용된다.

상별위는 또 대표팀 관리 책임을 물어 홍명보 코치와 코사 골키퍼 코치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운재 등과 동행한 강훈 대표팀 의무트레이너는 축구협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가 곧바로 발효됨에 따라 이들 네 명은 내년 11월 1일까지 대표 자격을 상실, 모든 축구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게 됐다.

또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FA컵과 일반 A매치의 경우 이운재는 3년 간, 나머지 셋은 2년 간 출전할 수 없다.

이갑진 위원장은 “국가대표 주장 선수는 중요 한 국제대회 도중 동료들을 충동해 숙소를 이탈한 뒤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한 것은 응분의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라며 “기술위원회 조사 보고서와 본인 진술을 토대로 주동한 자와 가담한 자를 구분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K-리그 출전 정지를 징계 내용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 “대표선수의 관리 주체는 대표단으로 소속팀과는 관계가 없다. 소속팀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이는 관리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방송환은 K-리그 전경기 출전정지였는데…

징계 수위 형평성 논란

축구협회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프로구단들은 소속팀의 피해를 최소화한 판단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음주파문을 통해 분노를 표출한 축구팬들은 얼마 전 그라운드 주택을 부렸던 방송환(인천)과 ‘징계 형평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 송방밍이 징계(?)

축구협회 상별위원회는 “대표 선수의 경우 소속 단체가 관리를 해야 한다. 대표팀에 선수를 차출해준 프로팀에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음주파문 선수들은 축구협회 주최 대회 출전과 대표 선수 자격만 한시적으로 제한받을 K-리그 경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상별위는 FA컵 4강전에서 퇴장 판정에 격분, 웃통을 벗고 항의 소동을 벌였던 방송환(인천)에게 K-리그 경

기를 포함한 모든 경기에 대해 1년 간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상별위를 열면서 외국의 선례와 프로팀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송환의 행위는 소속팀과 직접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징계의 차별성이 대해 설명했다.

▲ 어떤 경기에 못 나서나

이운재 등 4명의 선수들은 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쳐분에 따라 내년 11월 2일까지 축구대표팀에 뽑히지 못하게 돼 내년 2월 시작되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또 올림픽대표팀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나설 경우 ‘와일드 카드’로 뽑힐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된다.

하지만 이운재는 비롯해 우성용과 김상식의 경우 대표팀 은퇴가 임박한 상황에서 FA컵에만 나서지 못할 뿐 선수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체고 이애라 3관왕 ‘번쩍’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

한국 역도 기대주 이애라(17·광주체고·사진)가 2007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했다.

‘여고생 역사’ 이애라는 2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 스포츠팔리스에서 열린 75kg급 경기에서 인상 95kg 용상 120kg 합계 215kg으로 인도 쉬리스티(싱가포르 190kg)를 여유 있게 제치고 전 종목에서 1위에 올랐다.

윤샛별(20·고양시청)도 여자부 69kg급 경기에서 인상 92kg 용상 122kg 합계 214kg을 들어 올려 일본의 다니 야하노(합계 200kg)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 3관왕이 됐다.

윤샛별은 또 2005년 전국체전에서 세운 자신의 최고 합계 기록(209kg)을 5kg이나 늘리며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남자부 85kg급에서는 김태환(20·경남도청)이 인상에서 150kg을 들어 금메달 한 개를 따낸 뒤 용상(177kg)과 합계(327kg)에



서 은메달 한 개씩을 추가했다. 오흐영(19·포천시청)도 같은 체급에서 인상 146kg으로 2위, 합계 316kg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역시 박태환…여유있게 금

월드컵 수영 자유형 400m 종전기록 0.44 앞당겨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2007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 쇼트코스(25m) 자유형 400m에서 자신의 종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07 경영월드컵 3차 시리즈 첫날 쇼트코스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39초99의 기록으로 페트리 머피(3분40초43)를 여유있게 제치고 1위로 끝인했다.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기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트코스 3분40초43의 기록을 0.44 앞당긴 것이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

서 열린 세계선수권과 8월 일본 국제수영대회(프레데리릭)에 이어 국제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내년도 베이징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박태환의 훈련 파트너인 박영호(3분57초79·서울체고)와 박찬희(3분59초72·경기고)는 400m 예선에서 각각 17위와 19위를 기록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편 박태환은 3일 오전 자유형 200m와 1,500m 예선전을 치르고 결선에 진출할 경우 이날 오후 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MBC ESPN이 생중계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일 2007 일본시리즈 챔피언이 된 주니치 드래곤스의 이병규가 태극기를 두르고 그라운드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규, 대표팀 기폭제 될까

첫 우승 여세 몰아 올림픽 예선 해결사 기대

1일 막을 내린 일본시리즈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 반지를 끼게 된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26일부터 대만 타이중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선수권에서도 대표팀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미우리와 일본시리즈 진출권이 걸린 2차전에서 베팅같은 3루타와 홈런 등으로 3타점을 올리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던 이병규는 일본시리즈 2차전 4-1로 앞선 상황에서는 우월 투런포로 빼기를 박았고 2-0으로 앞선 3차전에서는 우승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로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탰다.

일본시리즈에서 그가 거둔 5타점을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나카무라 노리히로(4개)보다 많은 팀 내 최다 타점. 일본시리즈 타율은 5경기에서 0.111에 그쳤지만 득점이 필요한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때려주면서 ‘해결사’로서 기질을 발휘했다. 주니치는 이병규 등의 활약에 힘입어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우승

축배를 들었다.

한국 국가대표팀 단골 멤버인 이병규에게 걸고 있는 건 두 가지. 포스트시즌에서 여세를 몰아 사활이 걸린 대만, 일본전에서도 적시타를 때려 줄 수 있느냐는 것과 일본 투수들에 대한 정보력이다.

이병규는 한국전 선발이 예상되는 니혼햄 에이스 다르빗슈 유와 일본시리즈에서 두 차례 맞붙어 안타를 때리지는 못했지만 성향을 파악했고 홈런을 뽑아낸 우에하라 고지, 다카하시 히사노리(이상 오미우리) 등 일본 대표 투수들 스티일도 한 시즌을 겪으면서 충분히 연구했기에 대표 선수들에 대한 정보력이 많다.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국가의 추락을 직접 체험했던 이병규가 1년간 일본에서 새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국의 부활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바호 공격축구 VS 컴퓨터 조직축구

포항-성남 내일 K-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

‘한국형 리틀 삼바호’의 공격축구와 ‘컴퓨터’ 조직축구가 철강왕국 앞마다에 서 물러설 수 없는 결투를 벌인다.

젊은 브라질 사령탑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이 조련한 포항 스텔러스와 ‘국내파 최고 자락’ 김학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성남 일화가 4일 오후 3시 포항 스텔라드 전용구장에서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치른다.

6강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거치며 경남 FC, 울산 현대,

무명 돌풍…조영란 1위, 박보배 2위

신지애 공동 5위로 밀려

KLPGA KB 스타투어 2R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 가운데 우승 상금이 가장 많은 1억2천500만원의 KB국민은행 스타투어 5차 대회는 1리운드 아마추어 돌풍에 이어 2리운드에서는 무명 선수들이 상위권을 점령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2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하늘코스(파72·6천58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조영란(20·하이마트)은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2부 투어를 거쳐 지난해 데뷔한 조영란은 지난해 상금랭킹 20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는 네 차례 ‘톱10’으로 상금 12위를 달리는 등 꾸준한 성적은 내고 있지만 우승은 물론 4위 이상 입상이 한 번도 없어 팬들에게 낯선 선수.

올해 정규 투어에 뛰어든 새내기 박보배(20)도 이날 2타를 줄이며 조영란에 3타 뒤진 2위(3언더파 141타)에 올라 무명 돌풍에 합세했다.

시즌 아홉 번째 우승을 노리는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는 좀체 볼 수 없는 샷 난조로 2타를 잊어버려 공동 5위 그룹(이병규 144타)으로 밀려났다.

첫날 선두로 나섰던 아마추어 국가대표 주장 송민영(18·대전국체고)은 1오버파 73타를 쳐 3위(2언더파 142타)로 내려 앉았지만 상위권을 지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